천주교의 지역화와 지역 활동
-제주도 신창마을 공동체의 사례-

염미경
제주대학교

1. 서론
2. 연구 대상과 방법
3. 제주도에서 천주교의 성장
4. 신창마을에서 천주교의 지역화와 참여
5. 결론

1. 서론

한국 사회에서 종교는 다른 국가나 사회와 비교해서 매우 특이한 양상을 띤다. 무속으로 대표되는 선사의 샤머니즘, 19세기 이후에 생긴 천도교를 필두로 한 수많은 민족 종교, 그리고 유교, 불교, 기독교, 천주교와 같은 세계 종교들이 공존하는 사회는 한국밖에 없다.[1] 이와 관련해, 한국의 전

* 이 글의 자료 수집과 작성에 제주대학교 사회교육과 이권진군과 대학원의 김규리 선생님의 도움이 있었다. 각종 문헌 자료를 제공해주시고 심층 면접에 응해주신 성당 관계자들과 마을 주민들께 감사드린다.

1) 윤이흠, 〈신념 유형으로 본 한국 종교사〉, 《한국 종교의 이해》, 집문당, 1985, 48쪽.

체 인구 중 종교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57%에 이른다(<표1> 참조). 제주도에서 천주교 신자 비중은 약 10%로 전국 신자 비율과 같다.

<표1> 한국의 종교 인구의 변화 추이

연도	1984	1989	1998	2004
비율(%)	43.8	49	52.8	57

자료 : <국민일보> 2005년 1월 25일자.

제주도는 무속 신앙이 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일상적인 삶의 기반이 된 지역 사회로,[2] 제주도의 역사적·사회문화적 독특성은 자주 거론되곤 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제주도의 천주교 신자 비중은 10.3%로 높은 편이다.[3] 특히, 이 글의 사례 지역인 신창마을이 속해 있는 한경면 인구 중 10%가 천주교 신자인 것에 비해, 신창마을은 한경면의 평균보다 약 4배 높은 41.2%가 천주교 신자이다. 물론 신자수의 비율이나 교세의 양적 비중이 그 지역 사회에서의 영향력이나 중심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단언하기는 힘들지만 가장 객관적인 지표로서 역할 비중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볼 때, 신창마을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는 일정한 의의를 지닌다.

2) 해방 이후 지역별 종교 분포의 변화를 보면, 급속히 신자가 증가한 프로테스탄트와 가톨릭을 합친 그리스도교 인구가 전국적으로는 불교 신자보다 많지만 제주도에서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처럼 불교 신자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이 곧바로 무속의 뿌리가 강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제주도의 종교 지형이 전국적인 상황과 상당히 다른 특징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조성윤, 〈제주의 무속 신앙과 신종교〉, 《신 종교 연구》 9, 한국신종교학회, 2003, 23~24쪽).

3) 2005년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서울이 14.2%로 가장 높고, 다음이 인천 13.7, 부산 7, 울산 6, 강원 9.1, 충남 9.1, 전남 8.7, 경북 7.1, 경남 5.9% 등 신자 비율이 10% 미만인 지역도 상당수이다.

<표2> 신창마을의 천주교 신자수

구 분	인구수	신자수	신자비율(%)
전 국	47,041,434	5,146,147	10
제 주	530,686	54,765	10
제주 한경면	8,634	865	10(2005)
신창마을	882	363 (남 142, 여 221)	41.2(2007)

자료 : 제주도 통계 자료(2006. 12. 31), 신창성당 통계 자료(2007. 3)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글의 문제의식을 밝히면 다음과 같다. 제주도에 처음 천주교 본당이 생긴 곳은 제주시이고, 다음이 서귀포시, 그리고 세 번째로 본당이 생긴 곳이 신창마을이다. 척박하고 밭농사도 힘들어 어렵던 제주도, 특히 신창과 같은 작은 마을에 제주도에서 세 번째로 본당이 생기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서 출발해, 이 글에서는 천주교가 제주도 지역에 정착해 지역화[4]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구체적인 분석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연구로 제주도에서 천주교의 영향을 살피고 있는 양철호, 김옥희 등의 연구이다.[5] 양철호는 제주도 근대여

4) 이와 비슷한 용어로 '토착화'라는 용어가 있다. 대체로 '토착화'는 외래 종교가 지역 주민들과 융화되어 새로운 형식이나 방식으로 내면화되고 뿌리내리는 것을 말한다. 이 글에서 사용하는 '지역화'는 다른 지역에서처럼 일방적인 방식으로는 천주교회가 뿌리내리기 힘들다는 인식하에 천주교회가 입지한 지역 중심의 지역 밀착 체제로 천주교가 뿌리내림을 꾀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천주교회가 그것이 들어서 있는 지역의 실정에 알맞도록 교회 체제 운영 계획을 수립해 지역의 실정과 주민들의 수준에 맞는 활동에 기반해 교세를 확장해나가는 전략을 총칭하는 의미로 '지역화'를 사용한다.

5) 양철호, 〈천주교의 전래가 제주 근대 여성 교육에 미친 영향〉,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 김옥희, 《제주도 신축년 교난사》, 천주교 제주교구, 1980 ; ——, 〈제주도 천주교의 수용 전개 과정〉, 《탐라 문화》 제6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7.
이외에 천주교의 지역 전파와 정착에 대한 연구로 주목할 만한 것이 다음과 같다.
석창훈, 〈천주교의 경상 지역 전파와 유교와의 갈등〉, 《인문과학》 16, 경북대학교 인문과

성 교육의 태동에 기여한 천주교회의 교육 사업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를 통해 천주교가 제주 교육의 근대화와 제주의 공교육 및 근대 사학의 발전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고 있다. 김옥희는 제주도에서 천주교의 수용 및 전개 과정을 제주도 천주교의 수용 이전과 이후의 사회·정치·경제적 상황, 그리고 1901년 敎案의 제요인과 이후 敎民에 대한 박해 현황과 교회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

제주도에서 천주교는 1899년에 들어와 1901년 辛丑敎案을 거치면서 뿌리를 내려나갔으며 1908년에는 프로테스탄트가 전교되어 기존 신앙과 충돌하면서 교세를 펴나갔다.[6] 교회사 측면에서 또는 민란의 측면에서 가톨릭 선교와 신축교안[7]은 매우 중요하게 자리매김해 있다. 1901년 신축교안을 다룬 연구로는 천주교 측 입장에서 다룬 유홍렬과 박광성의 연구가 있고, 제주지방민의 시각으로 접근한 김옥희의 연구가 있다.[8] 이들 연구는 제주민란으로서 1901년 신축교안의 원인을 살피고 있는데, 특히 김옥희의 연구는 일본 상인의 제주도 진출과 토착세력 간의 제휴 문제를 다뤄 대내적·

학연구소, 2003 ; 금경숙, 〈강원도 영서 지역의 천주교 전래와 수용에 관한 고찰〉, 《박물관지》 9, 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 2002 ; 손숙경, 〈조선 후기 경남 지역의 초기 천주교 수용자들과 수용 형태 : 언양 지역의 사례 연구〉, 《부산사학》 34권 1호, 1998 ; 김동소, 〈영남 지방 천주교 전래와 '한티'〉, 《한국전통문화연구》 제12집, 1997. 12.
석창훈은 천주교가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한 경상도 지역에 전파돼 정착되는 교회사적 과정과 위정척사에 바탕을 둔 지역 유림의 반발, 그리고 교안(敎案)이라는 전통과 서학의 충돌 사건을 살펴봄으로써 개항기 보수와 혁신의 갈등 양상을 분석하고 있다. 금경숙은 춘천 지역을 중심으로 강원도 영서 지역의 천주교 전래와 수용에 대해, 손숙경은 언양 지역을 중심으로 조선 후기 경남 지역의 초기 천주교 수용자들의 수용 형태를 살피고 있다.

6) 현용준, 〈제주도민의 신앙 체계와 무속〉, 《제주도 연구》 6, 제주도연구회, 1989, 3~4쪽.

7) 신축교안으로 인해 신자는 물론 민간인들까지 포함하여 700여 명이 관덕정 광장에서 학살당하는 참극이 벌어지게 된다. 이때 순교한 신자들이 제주도 화북천 주변에 마구잡이로 묻혔는데, 1903년에 아라동 부근 황무지를 매장지로 결정하여 옮겨 묻도록 하였다. 이곳이 현재의 황사평 성지이다.

8) 유홍렬, 〈제주도에 있어서의 천주교 박해-1901년의 敎難〉, 《李丙燾博士華甲記念論叢》, 일조각, 1956 ; 박광성, 〈1901년 제주도 민란의 원인에 대하여〉, 《인천교육대학 논문집》2, 1968 ; 김옥희, 앞의 책, 1980 ; 김옥희, 앞의 글, 1987.

대외적 원인을 보여주고 있고 신축민란을 민중의 입장에서 살피고 있다는 점에서 교회사를 지방사 차원에서 좀 더 밀착시키려는 시도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교회사와 지방사의 연계 연구 시도는 교안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교안 연구로는 박찬식, 장동하, 이원순 등의 연구가 주목할 만하다.[9] 한말 천주교회가 향촌 사회에서 단순히 종교 집단의 성격을 벗어나서 사회 세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교안은 이와 같이 사회세력화된 교회를 축으로 하여 향촌 사회의 여러 계층 간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지역의 교안 연구는 교회사적 의미뿐만 아니라 지방사와 사회사적 의미를 함께 지닌다고 하겠다.

이상의 연구들은 천주교가 제주도 차원에서 수용되고 확산되는 과정과 전체 교육사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조망하려했다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천주교가 들어서 있는 마을 공동체 단위에서 천주교의 위상이나 지역화 과정 혹은 지역 활동을 다룬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제주도 신창마을을 중심으로 천주교의 지역화 과정과 지역 사회 참여 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 대상과 방법

이 글의 연구 대상인 신창마을은 제주도 제주시 한경면에 속하는 마을로 제주시에서 서쪽으로 42km 지점에 위치한 마을로 원래 이 마을은 두모리에 속했으나 1909년 마두모리에서 분리된 마을이다. 총 4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2번 국도(일주도로)를 중심으로 해 남쪽으로는 상동과 신흥동이 위치해 있으며 북쪽으로는 중동, 해안가 인접지역에는 하동이 위치

9) 박찬식, 〈한말 천주교회의 성격과 '교안'〉, 《교회사연구》 11, 한국교회사연구소, 1996 ; 장동하, 〈한말 교안의 성격〉, 《최석우 신부 수품 50주년 기념 논총》 제1집, 한국교회사연구소, 2000 ; 이원순, 〈조선 말기 사회의 '교안' 연구〉, 《한국천주교회사연구》, 한국교회사연구소, 1986.

해 있다. 한경면사무소 소재지 마을로 신창항을 중심으로 지역 개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마을이며 2005년 12월 말 현재 인구는 남자 447명, 여자 473명으로 총 920명이며 총 세대수는 358세대이다. 아래쪽으로는 바다와 접해 있으며 위로는 한원리(서리논)와 접해 있다. 어업과 농업이 고루 발달되어 있으며 주민들은 농업(쪽파, 양파, 양배추, 감자, 브로콜리, 마늘 등)과 어업(한치, 갓돔, 소라, 톳, 오분자기 등) 및 상업을 주업으로 생활하며 신창포구에는 23척의 소규모 어선이 있다.

<그림 1> 조사 대상 마을의 위치



지역은 자연 생태적 차이뿐만 아니라 물질적 토대와 사회관계의 차이를 반영하는 독특한 역사성과 사회성을 지니며, 지역의 상징적 의미들은 주민들에게 내면화된다. 자신이 태어나고 거주하는 지역 공간의 역사가 내면화되어 구성된 지역 사회는 해당 지역 주민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마찬가지로 종교가 특정 지역에 전래되어 주민 생활에 밀착될 경우 그 지역 사회는 일정한 종교적 특성을 갖게 되는데, 이 글에서는 제주도 신창마을을 중심으로 이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지역의 종교는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그 지역 사회의 중심적 위치가 되기도 하고 지역 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지역 사회와 유기적 관계를 형성해 나간다는 인식[10]하에서, 제주도 천주교의 정착과 성장사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신창마을을 중심으로 천주교회[11]의 설립 배경과 지역화 과정 및 지역 활동을 살펴본다. 필요한 경우, 연구 대상 지역인 신창마을 이외에 신창성당 관할 지역(한경면 신창리, 금등리, 낙천리, 두모리, 용수리, 용당리, 저지리, 조수리, 판포리, 한원리)에서의 지역화 과정도 언급할 것이다.

분석의 시간적 범위는 천주교가 전래된 이후부터 2007년 현재까지이다. 구체적인 분석에는 문헌 연구 방법과 주요 정보 제공자를 중심으로 한 심층 면접 방법을 주로 사용하였고, 이외에 통계청 및 현지에서 수집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특히, 《제주 천주교회 100년사》는 조사 대상 지역 성당의 성장 과정과 신창마을 천주교 교세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음을 밝혀둔다. 현지 조사는 주로 2006년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이루어졌으며, 주요 조사 대상자는 신부를 비롯해 신창성당 및 사목회 관계자

10) Gilbert & Specht은 교회를 포함한 모든 지역 사회가 공통적으로 수행 하는 사회적 기능은 생산 · 분배 · 소비, 사회화, 사회 통제, 사회 통합, 상호 부조가 있으며 이러한 기능들은 산업 기관, 교육 기관, 종교 기관 등 지역 사회 안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이 공통적으로 수행한다고 한다. 특히 모버그(Moberg)는 교회의 사회적 기능을 사회화기능, 신분부여기능, 친교적 기능, 사회연대기능, 사회안정기능, 사회통제기능, 사회개혁기능, 사회복지기능, 자선기능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이향남, 〈한국 교회의 지역 사회 복지 참여 방안 연구〉, 대전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2005, 20쪽).

11) 이 글에서는 천주교와 성당을 동시에 표현하는 개념인 '천주교회' 개념을 사용하였음을 밝혀둔다. 한국사목연구소, 《한국 천주교회사의 성찰과 전망》,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2를 참조 바람.

와 마을 주민들이다.

3. 제주도에서 천주교의 성장

고려 시대 이전 제주도인의 신앙은 무속을 중심으로 한 단일 신앙 체계에 가까웠다. 이러한 무속 단일 신앙 체계에 고려 문종 12년(1058) 법화사가 준공됨으로써 불교가 포교되고 1273년부터 元의 불교가 수입돼 水精寺와 元堂寺 등이 창건되면서 불교가 번져갔다. 이때의 불교는 토속성이 매우 짙어서 무속 신앙과 충돌 관계에 있지 않고 오히려 상보 관계에 있었던 것 같다. 그것은 조선 시대 제주목사 이충선이 사찰과 신당을 동시에 창건한 사실로 추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타 지역의 유례없이 신당과 불사를 동시에 파괴한 것을 보면 양자를 동일시할 만큼 불교는 토속화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파괴 사건 이후 제주도는 200여 년 동안 불교의 황무지가 되었다가 1908년부터 재포교되어 불교가 재흥하게 되었다.

한편, 제주도에 본격적으로 천주교가 전파된 것은 제주도 중문면 색달리 출신 양용항(베드로)에 의해서다.[12] 이것은 1898년으로, 양 베드로가 한반도(육지)에 머물렀을 때 영세 입교한 뒤 제주도로 돌아와 신 아우구스티노와 바오로 형제, 보성(대정읍 보성리) 김 생원 등에게 전교하는 등 이웃 친지들에게 포교하면서부터이다. 성직자를 제주도에 모셔오려는 양 베드로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1899년 두 명의 성직자가 들어와 성사와 전례를 집전함으로써 제주 교회 공동체는 공식적으로 성립되었다. 그리고 신자들의 전

12) 물론 제주도에 처음으로 천주교 신앙이 알려진 것은 1801년 신유박해로 제주로 유배 온 정난주(마리아)에 의해서이다. 정난주는 제주도 대정현의 노비로 유배돼 37년 동안 제주에서 관비로 살았다. 1845년에는 제주도 한경면 용수리 바닷가에 김대건 신부가 인도한 라파엘호가 표착해 제주도 앞바다에서 미사를 봉헌하였다. 이후 제주도 사람으로 처음으로 영세 입교한 사람은 김기량(펠릭스 베드로)이며 그는 1866년 병인박해 때 순교하였다. 이후 제주의 복음사는 단절된다(제주선교 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제주 천주교회 100년사》, 2001).

교 활동으로 제주도에 신부를 받아들일 수 있는 터전이 구축되고 있던 1899년, 조선교구의 뮈텔(G.-C.-M. Mutel, 閔德孝) 주교는 제주본당의 설립을 결정하여 페네(J.-C. Peynet, 裵嘉祿) 신부와 김원영(아우구스티노) 신부를 제주본당에 파견하였고, 이들은 제주읍에 자리 잡고 전교를 시작하였다.[13]

제주도 최초의 본당 설립은 1899년 7월 27일 제주도 대로동이 발신지가 되어 있는 김원영 신부의 서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1900년 6월 10일자 서한에 한논[大畓] 본당이 설립되어 제주성 내에서 정의(한논) 지역으로 천주교 전파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14] 이후 제주도의 교세는 점차 확대되어 1901년 통계에 의하면, 1901년 초 당시 제주도 총인구 4만여 명 중 신자가 242명, 예비신자가 700여 명에 이르게 된다.[15] 이처럼 천주교세가 확장되기 시작할 때 신축교안(1901)[16]이 발생하게 된다. 1901년 신축교안 이후 1990년대 초반의 통계를 보면, 가톨릭 제주교구의 교세는 본당 14개, 공소 17개, 주교 1인, 사제 23명, 중·고등학교 각각 1개 교씩이다.[17] 당시 독립된 교구를 운영하고 있고, 독자적인 선교 정책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것은 1901년 신축교안의 상흔을 감안할 때 상당한 교세 확장이었다.

---

13) 《제주도지》, 1982, 631~632쪽.

14) 양철호, 앞의 글, 1999, 21쪽.

15) 박찬식, 〈한말 제주 지역의 천주교회와 '제주교안'〉, 《한국근현대사연구》 4, 한울, 1996, 80쪽.

16) 1991년 신축교안(辛丑敎案)은 제주교안, 신축교난(辛丑敎難), 이재수의 난, 제주민란 등으로 불리어왔다. 이재수의 난 또는 제주민란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것이 제주의 세금 징수와 관련된 학정과 천주교회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봉기한 민중들의 민란으로 보기 때문이다. 반면에 신축교난이라 불리는 것은 이 사건으로 많은 신자들이 희생되었기 때문에 박해의 요소가 강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신축교안에 대해서는 박찬식, 앞의 글, 한울, 1996과 김옥희, 앞의 책, 1980을 참조 바람.

17) 《기독교대연감》, 기독교문사, 1991.

<표3> 제주도의 천주교 확산

1차 확산지	2차 확산지	3차 확산지
제주중앙본당 (1899) *1899	동문본당(1968) *1968	김녕본당(1958) *2004
		조천공소(1975) *1999
	광양본당(1970) *1972	동광본당(1995) *1995
	서문본당 (1977) *1977	신제주본당(1981)*1981 → 노형본당(1997)*1997 → 연동본당(2001)*2001
	화북본당 (1997) *1997	
	우도공소 (1904, 1947)	
서귀포(한논)본당 (1899) *1899	모슬포본당(1954) *1958	무릉공소(1960)
		화순공소(1961)
	가나안공소(1955)	
	남원본당(1956) *1997	
	중문본당(1957) *1988	
	성산포본당(1955) *1973	세화공소(1992)
	효돈본당(1958) *1988	
	표선본당(1968) *1997	
	서귀복자본당(1970)*1970	
신창본당 (1935) *1952	용수공소(1949)	
	조수공소(1952)	
	고산본당(1955) *1990	
	청수공소(1956)	
한림본당 (1951) *1954	금악본당(1957) *1982	
	하귀본당(1961) * 1998	
	애월공소(1959)	

자료 : 김두욱, 〈제주도 외래 종교의 공간적 확산과 수용 배경〉, 한국 교원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1999, 22쪽. ( )은 천주교회 창건 연도. *은 본당 승격 연도, 폐쇄된 공소는 제외하였음.

제주도 내 천주교는 제주시내에 중앙성당과 한림읍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양상을 보인다. 최초로 제주본당이 들어선 곳은 제주시로 현재 제주교구가 위치해 있다. 다음으로 생긴 곳이 한논본당이 있었던 지금의 대정읍이다. 이는 제주본당을 책임지던 김원영 신부가 거처를 대정읍으로 옮기면서 그 지역의 전교 활동이 활발해져 생긴 결과이다. 이후 현재의 서귀포시 서홍동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그 지역 역시 세력이 커졌다. 그 이후 제주본당을 중심으로 우도, 한림, 조천 등지로 전교 지역을 넓혔으며 계속 교세를 확장해 현재와 같은 천주교의 교세 구도가 마련된다. 또 다른 특징은 제주도 동부와 서부 지역 간 천주교 영향력의 차이다. 이는 각 지역 주민들의 생활양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데, 동부에 비해 서부는 땅이 기름져 농사를 짓는 인구가 더 많았던 데 비해, 동부는 땅이 척박하여 농업 비중보다 어업 비중이 더 컸다. 전통적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지역은 당(堂)이 발달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제주도 서부 지역은 토착 신앙에 더 의존하는 동부에 비해 민간 신앙이 덜 발전하였고, 이에 따라 서부 지역에서의 전교 활동이 더 수월했을 것이다[18](<표3> 참조).

한국전쟁은 천주교의 교세 확장의 전기를 제공했다. 1950년 한국전쟁으로 피난민들이 제주도로 몰려들기 시작했는데,[19] 특히 많은 피난 성직자, 수도자, 신학생들을 비롯해 많은 신자들이 피난을 오면서 제주도 전교에 큰 전환기가 된다. 4·3사건 후부터 한국전쟁 전후까지 교회는 가톨릭복지협의회(NCWC) 등을 통해 피난민과 도민들에 대한 구호 사업을 전개하여 신자수 증가에 기여하였다. 1950~1951년 제주본당의 신자수는 해방 직후 얼마 되지 않았으나 611명으로 증가하였고, 1951~1952년에는 932명으로

18) 제주도 동부와 서부 지역 간 천주교의 전교 활동과 영향력 차이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19) 1951년 1월 3일 제주도에 들어온 피난민은 16,000명이었으나 1월 15일에는 87,000명, 5월 20일에는 148,794명에 달해 제주도 토착인구의 절반이 넘었다(부만근, 《광복 제주 30주년》, 문조사, 1975, 117쪽).

증가하였다. 또 1951년에는 한 때 예비 신자수가 1,173명을 기록한 적도 있었다. 서귀포본당의 경우에도 1950~1951년에 203명이던 신자수가 1951~1952년에는 241명으로 증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신설된 신창본당의 경우에는 1952년 첫해의 신자수가 296명으로 서귀포본당의 신자수를 능가하고 있다. 1952년 제주의 총 신자수는 1,469명, 예비 신자수는 359명, 새 영세자수는 246명이었다.[20] 2007년 현재 제주교구의 교세 현황을 보면 <표4>와 같다.

<표4> 제주교구 교세 현황

구분	신자수	본당수	공소수	성직자(명)			수도회		사회복지기관	의료·법인기관	고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신용협동조합
				주교	신부		남	여						
					교구	기타								
단위수	63,575	24	11	1	34	5	4	11	9	2	1	1	6	2

자료 : 천주교 제주교구청(2006)

<표4>에 의하면, 현재 제주교구의 신자수는 63,575명이며, 본당수는 시지구 12, 서부지구 5, 남부지구 7, 합해서 24개이며 공소는 11개이다. 현재 주교 1명, 신부 39명, 수도회는 15개가 활동하고 있다. 사회복지기관은 9개, 의료·법인 기관은 2개, 고등학교 1개, 중학교 1개, 유치원 6개, 신용협동조합 2개가 있다.

20) 제주선교 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앞의 책, 2001, 186~189쪽.

4. 신창마을에서 천주교의 지역화와 참여

1) 천주교의 지역화과정

먼저 1957년 신창본당으로 승격되기 전 신창공소 시기이다. 1935년에 교사 안병호(베네딕토)가 신창초등학교에 부임하면서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때 신입 천주교 신자가 20명, 예비 신자가 30명에 이르렀다.

한국전쟁을 전후해 다른 지역에서 유입된 피난민들 중에는 성직자, 수도자, 신학생, 신자들이 많았는데, 이는 신자수 증가에 영향을 주었다. 한 신부님의 구술에 의하면, 여기에는 춘천교구 소속의 조응환(타대오) 신부의 역할이 컸다.

> 6·25 때 육지에서 온 신자들도 많았고. 내가 봐도. 와서 회장 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6·25 때 피난 와서 육지에서 열심히 하시던 분들이 잠깐 와서 전교사 역할을 하셨어.…조응환 신부님이시라고. 작년, 재작년에 돌아가셨구나. 그 양반이 피난 오시면서 신부님이 상주하셨고…(신창성당 출신 신부).

조응환 신부가 신창으로 피난을 와 상주함에 따라 1951년 4월에 신창공소는 '신창 준본당'으로 승격되었고, 성당 건립 계획을 세워 1952년 1월에는 성당을 착공하였으며 이후 준본당 위치에서 정식 본당으로 승격함과 동시에 조응환 신부가 초대 주임으로 임명되었다. <표5>는 1951~1952년 제주도의 교세 현황이다. <표5>를 보면 신창마을의 신자수가 서귀포의 신자수보다 많았음을 알 수 있다.

<표5> 제주 교회의 교세 현황(1951~1952)

설립순서	본당명	신자수	냉담자	예비신자	증가				감소		
					성인영세자	교우자녀영세자	전입자	소계	사망자	전출자	소계
1	제주	932	15	247	137	6	3	146	5	3	8
2	서귀포	241	14	67	30		8	38	6	20	26
3	신창	296	27	45	63	10	5	78	5	19	24
합계	3	1,469	56	359	230	16	16	262	16	42	58

자료 : 제주선교 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제주 천주교회 100년사》, 2001, 188쪽.

당시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천주교 신자가 증가하게 된 요인으로 성당을 통한 구호물자의 보급을 들 수 있다. 한국전쟁 직후 미국 등 해외에서 구호물자가 들어왔고, 이러한 구호물자들이 성당이나 교회를 통하여 보급되었다. 구호물자를 받기 위하여 사람들은 성당으로 모였고, 이 과정에서 신자수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인터뷰 내용에서도 어느 정도 확인된다.

> 50년도에 6·25가 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난 후에 구호물자들이 들어오면서 그 구호물자 배급이 성당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니깐, 그 당시 누구에게 든지, 지역 주민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지만 성당에 그렇게 오다 보니깐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하고, 세례를 받고 그렇게 성당에 나오면 더 배급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소외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연히 많이 나왔던 거고(신창성당 신부).

> 옛날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우선 막 어려울 때니깐 원조 물자가 들어올 때 그런 것을 배급 받으려고 많이 다녔지. 우유 같은 거, 밀가루 같은 거. 우

리 학교 다닐 때도 막 청바지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몰라도 구호 물품으로 많이 왔어. 옛날 어려울 때는 그런 거 때문에도 많이 다니고 그랬을 꺼라(신창리 관계자 김○○, 남, 비신자).

미국 사람들의 감시 하에 옷이라든지 구호물자라든지, 담요라든지, 이런 것을 대개 적십자 이런 계통에서 보내온 것을 그래도 교회는 그냥 행정관청에서 하면 끝발 있고 그런게…그래도 교회는 양심적인 사람들이니까 분배하는데 조금 믿을 수 있지, 그래도 교회가 좀 평등하지. 그래서 그때 춥고 배고프니깐 교회를 다녀야 혜택을 받을 거 아니여. 그 저 강냉이 가루나 밀가루든지, 우유가루든지, 춥고 배고플 때니깐(지역주민, 비신자).

그때 구호물자를 주면서 신자들을 많이 확보를 했었지. 그리고 강냉이 죽 쒀서 마을 사람들한테 공짜로 주고 했지…그건 전국적으로 다 그 영향은 있었지. 구호물자 관계는. 어려우니깐 우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영향도 있었어.

한국전쟁 후 1960년대까지도 미국에서 들어온 보조금[21]과 구호물자가 성당을 통해 보급되었고, 이것은 신자수 증가에 기여하였다.[22] 당시 신창 성당의 신자수 추이를 보면 <표6>과 같다.

21) 1961~1962년 제주도의 본당별로 NCWC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보면 다음과 같다(단위 : 파운드).

본당	제주	서귀포	신창	한림	모슬포	계
보조금	3,760	3,270	2,000	2,000	300	11,330

22) 제주선교 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앞의 책, 2001, 209쪽 ; 〈가톨릭시보〉 372호(1963년 4월 28일자).

<표6> 신창성당 신자수의 추이

연도	신자수(명)
1936년	신입 : 20 예비 : 30
1947년	100
1952년	296
1959년	1,329

자료: 제주선교 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제주 천주교회 100년사》, 2001, 188쪽.

한편, 신창성당의 교세는 1970년대 이후 상대적으로 안정기에 들어선다. 신자수가 1970년 1,891명, 1975년에는 2,251명, 1980년에는 2,387명으로 2,000여 명 안팎으로 유지되었다. 신창마을 주민의 60~70%가 신자일 정도로 교세가 확대되었다.

천주교 신자수 증가의 또 다른 요인으로 성당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했다는 점[23]과 정부 정책의 영향[24]을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천주교 성직자들에 대한 좋은 이미지도 신자수 증가에 영향을 주었고 주민들 다수가 성당을 다니게 되면서 다른 주민들도 자연스럽게 성당에 나가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 우리 아버지도 어느 친척 분이 돌아가셔서 장례미사 한다고 해서 가 봤는데, 신부님이 미사 드리는 모습을 보고, 그런 모습에 반하시면서 가톨릭의 모습을 거기에서 본 거야. 그래서 자기도 성당에 가야겠다 해서 우리 어머니

23) 이와 관련해 한 신부는 다음을 지적하였다 "그 당시에는 지역적으로 여기뿐만이 아니라 어디든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어울려 할 수 있는 그런 꺼리들이 많이 없었으니깐 종교가 그런 역할을 했었죠. 사람들을 서로 연결시켜 주고."

24) 한 신부에 의하면, 1970년대 정부에서 여러 가지 미신 행위를 금지시켰는데, 민간 신앙을 믿었던 지역 주민들이 이를 금지시키자 종교적인 무언가를 찾게 되었고, 그러던 중 기존 신창마을에서 융성하던 천주교를 많이 찾게 되었을 것이라고 했다(인터뷰일자는 2007년 3월 20일자).

랑 성당에 나가시게 됐지.

성직자들의 모습, 처음부터 성직자들이 와서 상주하면서 그분들의 생활·말씀·행동이 사람들에게 많이 어필하게 됐지.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지내는 것이 굉장히 자부심을 갖게 됐어.

다들 마을은 구호물자 때문에 우선 가톨릭에 들어가겠다는 인식을 했지만 우리 마을은 그 전에 가톨릭에 대한 인식, 신부님에 대하여 보는 인식이 달랐었어. 그래서 멋진 신부님, 훌륭한 신부님으로부터 그분들을 통해서 배고픔까지 해결해 줬단 말이지. 그래서 더 가톨릭이 융성하게 된 것은 사실이지.

신창 가까이에 두모리에 교회가 있지. 신창에서 거기 가는 사람 별로 없어. 옛날부터 누구네 집은 예배당 집이라고, 저긴 절간 집, 마을 사람들이 다 알아. 그래서 어울리지도 못해…전에 신창 사람들 중심으로 하면 60~70% 됐었지. 그러니깐 성당 안 다니는 사람은 같이 어울리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불교 신자, 예배당 신자들은 누구네 집 훤히 드러나. 그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를 못 하드라고. 그래서 신창에 살려면 당연히 가톨릭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인식이 있었어.

내가 어렸을 때도, 물론 신학생이긴 했지만. 우리랑 같이 놀려면 성당에 가야 돼. 이 시간에 성당에 가는 시간이고 하면 성당에 갔다 와서. 같이 어울려서 다니려면 우리랑 같이 다녀야 돼. 안 그러면 우리랑 같이 놀지 못할 정도로. 성당 안 다니는 애들은 따돌림을 받는 느낌을 받았었어. 다 가톨릭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그렇게 됐었고.

또한 신창성당 출신의 사제·수도자의 영향도 있었는데, 사제와 수도자가 상당수 배출되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4명의 사제가 배

출되었고, 2007년에 1명의 사제가 더 배출될 예정이다. 신창성당 출신 수녀의 수는 신창성당 출신의 한 신부의 구술에서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 수녀는 아주 많다. 내가 봐도. 1995년, 1994년 즈음에 45명이라고 들었거든. 수도자들. 그때 신부님이 파악해 보니깐, 이게 신창리만이 아니라 한경면에서 신창본당에서 관할하는 지역 출신 수도자들이. 그 후에 더 들어 갔으니깐 50~60명 되겠지. 지금 고산이랑 신창본당 두 개가 되니깐 나눠졌지만 그래도 많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창마을의 신자수는 1980년 2,387명으로 정점에 달했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게 된다. 1999년에는 1,214명으로 신자수가 감소했다. 다음의 교세 변모 현황을 나타낸 <표7>을 보면 1990년도를 기점으로 신창성당의 신자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표7> 신창성당 교세 변모 현황

연도	1952	1956	1959	1970	1975	1980	1987	1990	1995	1999
신자수	350	700	1,329	1,891	2,251	2,387	2,371	1,469	1,477	1,214

자료 : 제주선교 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제주 천주교회 100년사》, 2001, 398쪽.

1990년대 이후 신창성당의 신자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현재에 이르며, 2006년 6월 29일 신창성당 본당 승격 50주년을 맞았다. 2007년 현재 신창성당의 연령별 신자수를 보면 <표8>과 같다.

<표8> 신창성당의 연령별 신자수

나이 / 성별	0세	1~6	7~12	13~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세 이상	기타	합계
남	0	12	17	19	61	61	38	42	46	35	0	331
여	11	13	17	28	60	71	46	56	77	149	19	537

자료 : 신창성당 통계 자료(2007.3)

<표8>을 보면, 50세 이상 신자의 비율이 전체 신자수의 46.7%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중고령의 신자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만 70세 이상 여성 신자수가 149명으로 전체 여성 신자수의 27.7%, 전체 신자수의 17.1%를 차지하여 상당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젊은 층 신자의 감소는 성당 운영에 여러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는데, 신창성당에서 학생회나 청년회 조직은 없다. 따라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주일학교 운영과 성당 행사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농어촌 지역 성당에서 젊은 층 신자의 부재는 신창성당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볼 수 있으며, 향후 천주교의 도시 사목과 농어촌 사목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일정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2) 천주교의 지역사회 참여와 활동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35년 신창마을에 처음 공소가 생긴 이래 인근 지역으로 확산된다. 신창의 교세 확장은 인근 지역과 비교해도 두드러진다. 이는 신창성당 관할 지역 중 본당이 위치한 신창마을에는 타종교 시설이 전무하고 무속 행위도 일체 행해지지 않는다는 것에서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표9> 참조).

<표9> 제주시 한경면 종교 현황[25]

번호	마을	불교		천주교		프로테스탄트		마을 공동제 유무		비고 (마을 공동제)
		신도	구성비 (시설)	신도	구성비 (시설)	신도	구성비 (시설)	마을 포제	마을 당제	
1	고산리	280	9.6(3)	836	28.7(1)	155	5.3(1)		0	본향당제
2	낙천리	40	16.4(1)							
3	두모리					80	13.6(1)		0	해신제
4	신창리			737	70.0(1)					
5	용당리	50	14.4(1)			15	4.3(1)			
6	용수리			230	38.9(1)	90	15.2(2)		0	절부암제
7	저지리	110	9.7(2)			60	5.3(1)		0	본향당제
8	조수리			199	19.1(1)	75	7.2(1)		0	본향당제
9	청수리	70	13.9(1)	154	30.6(1)	35	7.0(1)			
10	판포리	200	30.1(1)			30	4.5(1)			
	계	750	7.3(9)	2,156	21.1(5)	540	5.3(9)	0	4	

자료 : 김두욱, 〈제주도 외래 종교의 공간적 확산과 수용 배경〉, 한국교원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1999, 104쪽.

이를 타종교에 대한 배척으로 보기보다는 과거부터 천주교 신자가 대다수인 마을에서 다른 종교가 유입되기 힘들었던 데서 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천주교는 마을의 종교 의례나 행위에 일정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신창마을에서 무속 행위가 과거에는 있었지만 거의 행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인터뷰 내용에서도 어느 정도 확인된다.

25) 이 자료는 1998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것으로, 이 글의 마을 인구 통계나 천주교 신자수 등에서 차이가 있고, 마을의 종교 시설 유무를 기준으로 신자수 통계를 내고 있어 다른 마을에서 마을의 종교 시설을 이용할 경우를 배제하고 있다.

우리 마을제는 없어. 예를 들면 미신 행위, 비 안 오면 하는 기우제 같은 거 없었어. 신창에는 아주 옛날 아니면 천주교가 들어오기 전에 조금 있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심하지 안 해. 어디 용수 같은 데는 있었지만. 기우제 같은 거. 우리는 미신이 없어. 여기가 천주교 지역인지 몰라도 아무것도 없어(신창성당 출신 신부).

신창지역 특징, 미신당이 전혀…옛날에는 있었겠지. 하지만 미신 행위 하나도 없어. 토테미즘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 내가 봐도. 그런 것이 벌써 엘리트가 됐다는 것이야(신창성당 출신 신부).

어부들이 이제 바다에 나가려면 아침 새벽에 공양을 간단히 드려서 오늘 하루도 풍어…또는 바다에 갔다 옵니다 하는 마음속으로 빌고 나가는 곳이 있었고, 지금 바로 이 밑에 양식장 건너편에 큰 할망당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거기 열심히 다니다가 성당으로 가게 됐는데…예전에 포제동산이라고 해서 구 중학교 위에 터가 있는데, 옛 설에는 제가 있었다 하는데 확실하게 얘기 하는 분이 없어서. 명칭만큼은 좀 듣습니다(지역주민).

그러면, 천주교의 지역 사회 참여는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가? 구체적으로, 천주교는 어떠한 지역 활동을 전개해왔고 이것이 지역 사회에 지니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 질문과 관련해 무엇보다도 먼저, 신창성당의 교세가 커지면서 신자수 증가와 함께 그들의 의식에 영향을 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것은 신창성당 출신 신부와 마을 주민과의 인터뷰 내용에서도 확인된다.

지대한 영향을 미쳤지. 의식 개혁이라든지, 생활 방식도 모든 예의범절도 가톨릭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계몽이 됐지…진짜 그리스도 정신, 하느님 앞에 세상 사람들에게 사회에 무엇인가 공헌하고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정신, 그리스도 정신, 즉 가톨릭을 통한 그 정신은 대단했었어…성

> 직자에 대한 인식이 달랐어. 정말로 문맹이나 마찬가지였던 마을에 그런 지성인들이, 외국인들이 말이지. 멋진 사람들이 와서 가톨릭 신앙을 전파하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이 추한 행동을 보였으면 가톨릭이 먹혀 들어가지 않지! 말씀이라든지 모든…그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지. 그렇게 세계의 이치를 가르쳐 줄 사람들은 없었지. 그래서 그 신부님들이 선구자나 계몽자나 마찬가지였지…많이 계몽을 시켰지. 사고방식, 생활방식, 의식구조를 많이 변화시켰어. 그렇다고 예배당이 나쁘다, 불교가 나쁘다, 샤머니즘 나쁘다, 이렇게는 안했어. 차츰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게 만들었어. 의식, 인식이 달라지게 했어. 가톨릭에 대한 인식도 그렇지만 의식의 개선이 되었지. 생활양식도 변해가고 자연히(신창성당 출신 신부).

> 성당에 가야 되고, 안 가고 그런 거는 없고. 배타하지도 않고. 다른 종교에 대해서 배타하지도 않고. 특히 천주교는 다른 종교에 비해서 배타하는 것은 아니잖아(주민, 비신자).

신창성당의 대 지역 사회 활동으로 주목할 만한 것이 주민 교육 활동이다. 이와 관련해, 주민들의 문맹률이 인근 지역에 비해 낮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 가톨릭의 영향이 참 대단했어. 정말로. 일단은 계몽시켰어. 문맹자를 없애준다거나 계몽시켰지(신창성당 출신 신부).

> 그렇지. 어쩌면 그런 것도 많지…할머니들이 모이면 글을 못 읽잖아. 어쩌면 몇몇 분들은 예전에 가르쳐 주기도 했었어. 수녀님들이랑, 신부님들이랑(신창성당 평신도협의회 관계자와의 면접).

이상의 인터뷰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성당에 다니기 위해서는 성경이나 교재를 통한 교리 교육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성당은 문맹

자들을 위한 한글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문맹률이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다시 주민의 교육열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 계몽이 되면서 거반이 다 중·고…교육열이 대단했고. 왜냐하면 아무래도 계몽된 사람들은 다르잖아. 더 배우려고 그러잖아. 덜 배운 사람들은 그냥 농촌에서 농사나 짓고 살면 되지만, 개화된 사람들은 다르지. 당연히 고등학교까지 졸업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신창성당 출신 신부).

한편, 신창성당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 특히 신창마을은 인근 마을에 비해 의식 수준과 생활수준이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이런 일이 있었어. 고산에서 이발사 하는 아이가 있는데, 신창에 와서 이발을 하는데 신창 젊은이들하고 고산 젊은이들하고 다르다는 거야. 왜 그랬더니? 인근 OO젊은이들은 돈이 생기면 우선 먹고 노는데 주로 사용하는데, 신창 젊은이들은 와서 보니깐 아니라고. 자기 품위 유지 위해 신경 쓴다고. 머리도 단정하고 복장도 그렇고. 그래서 다르다고. 가이가 그렇게 말했었고. 그리고 병원장이 한 분 계셨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고산에서 오래 하셨어. 나중에 마을 사람들이 땅을 줘서 신창에 와서 집을 지어서 병원을 개업했는데. 신창 사람들 신사라고 표현을 해. 고산에 있으면 밤중에 싸워서 터져서 병원 두들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신창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양반들이 사는 동네라고. 그 정도까지 가톨릭의 영향이 주민들에게 크게 영향을 주었지. 양반은 아니지만 신사도적인 그런 정신으로 살아야 가톨릭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암암리에 몸에 배었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싸움 나고 이런 것을 없어. 그래서 신창에서는 제일 사고·사건이 안나. 살인 행위, 자살 행위 이런 게 없어. 한경면에 오는 파출소 경찰들이 진급이 안 될 정도로. 사고가 나야 잘 해결해서 점수가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런 것이 없어 노니깐. 그 정도까지. 이제도 경해. 크게 강도 맞거나 그런 게 없

> 어.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마을 사람들이 바람났다거나 처녀가 임신했다는 얘기 들어보지 못했어. 다른 마을 사람들에 대해선 많이 들었지. 그 당시에는 그런 거 대단했어. 자살한 경우는 초등학교 4학년 땐가, 크게 싸우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 한 사람 자살했지. 그 다음부턴가 잘 없었어. 그렇게 드물어. 그리고 크게 싸워서 법정에 서고 원수지고 이런 경우도 없고…서로 피해를 안 주려고 상대방에게 서로 칭찬, 서로 좋은 인식을 심어주려고 하니깐 다 멋진 사람들이 되었지(신창성당 출신 신부).

특히, 천주교가 실시한 교육 사업 중 주목할 만한 것은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유아 교육이다. 1985년 9월 개원한 '신창 성 이시돌 유치원'이 그것이다. 유치원이 개원할 무렵 한경면에는 고산에 유치원 하나만 있었을 뿐, 미취학 아동들을 위한 교육 시설 또는 탁아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신창성당 부속 '신창 성 이시돌 유치원'이 개원하면서 신창마을을 비롯한 한경면 전체 아동들을 위한 교육 기회가 확대된다. 그 뒤, 유치원은 몇 해 전 '신창 성 이시돌 어린이집'으로 바뀌는데, 이는 농어촌 지역의 경우 부모가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탁아·보육의 성격이 강한 어린이집으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현재 한경면 전체적으로 영유아 교육 시설은 병설 유치원 3개,[26] 법인 기관으로는 고산과 저지에 각각 1개가 있으며, 법인 외 기관으로는 신창에 위치한 성 이시돌 어린이집 1개, 합해서 6개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어서 유아 교육 기관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서 '신창 성 이시돌 어린이집'은 지역 유아 교육에 일정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천주교의 또 다른 역할로 주민 생활 편의의 제공이다. 대표적으로 구민 활동과 문화생활 기회의 제공, 성당 시설의 이용, 그리고 독거노인 반찬 배달 사업 등이 있다. 먼저 구민 활동을 보면, 미군정을 거쳐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미국에서 들어온 구호 물자가 성당과 교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26) 현재 신창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고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저청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있으며 각 유치원의 원생은 10명 이내이다.

보급된다.[27] 이는 미국 가톨릭복지협의회(NCWC)의 전쟁구호위원회(CRS)[28]를 통해 원조가 이루어졌는데, 1950년 한 해에 미국의 각종 종교단체, 민간 구호 단체로부터 들어온 전체 구호품 총액은 280만 달러였으며, 그 가운데 200만 달러 이상이 NCWC의 몫이었다. 1953년 6월까지 한국전쟁 기간 동안 NCWC가 한국에 보내주었던 의약품과 의류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130만 달러에 이른다. 이렇게 해서 1946년부터 휴전 직후인 1954년 1월 NCWC가 보내준 구호품과 구호금 총액은 2,500만 달러라는 막대한 액수였다.[29] 그 이후에도 미국에 의한 구호 물품 지원은 계속해서 이루어졌다. 특히 신창성당은 1957년 부임한 미국 출신인 아이젤(H. Eisel, 양) 신부의 부임으로 그를 통해 미국에서 직접 들어온 더욱 많은 구호물자들이 주민들에게 보급되었고 수년 동안 계속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인터뷰 대상자의 구술에서도 잘 나타난다.

> 그때까지도 상당히 어려울 때야. 1957년 본당 승격되면서부터…그전에는 다른 신부님이 계셨고. 그 양반(아이젤 신부)이 많은 일을 하셨지. 그 분은 미국분이셨는데 그분을 통해서 미국에서 엄청난 구호물자가 들어왔었지. 아주 대대적으로 미국에서 직접 신부님을 통해서 구호물자가 들어왔는데. 그때 그 당시 우리가 보릿고개를 겪을 때야. 못 먹을 때. 못살 때. 그때 구호물자를 주면서 신자들을 많이 확보를 했었지. 그리고 강냉이 죽 쒀서 마을 사람들한테 공짜로 주고 했지(신창성당 출신 신부).

> 옛날에는 먹을 게 없었지. 쉽게 말하면, 여기서 주로 국가적으로 나오는 것보다도 신부님이 직접 미국에서 오는 거니깐 그 물품을 여기서 자기가 나

27) 문규현, 《한국 천주교회사 Ⅱ》, 빛두레, 1994, 238쪽.
28) 미국 가톨릭사회복지협의회(NCWC)는 1917년에 설립되었고, 이 가운데 전쟁구호위원회(CRS)는 2차 세계대전 중인 1943년 세계 각국에 산재해 있는 전쟁 포로와 난민 및 빈민들을 돕기 위해 조직되었다.
29) 문규현, 앞의 책, 빛두레, 1994, 235쪽.

눠 주겠다 그래서. 밀가루, 강냉이가루, 우유 같은 것, 구호품들, 옷 같은 거 신발 같은 것을 교회에서 많이 나누어줬다고 볼 수 있지. 죽도 끓여주고(신창성당 평신도협의회 관계자).

6·25 때, 그때 상당히 굶었잖아. 미국에서 구호물자가 많이 들어 왔잖아. 성당으로 해서 구호물자를 많이 나누어 주었지(신창성당 출신 신부).

양 신부(아이젤 신부) 이야기와 결부가 될 텐데, 그때 우유통 큰 드럼통 같은 걸로 여남은 개씩 가져와 가지고 천막을 쳐서 죽 쑤어주고, 강냉이 이런 것들을 아침 또 오후에, 오후에는 학생들이 학교 갔다 오면 먹도록 했고, 아침에는 조반 못 먹는 분들에게도 낭푼이 그릇 들고 오면 퍼주고 거기에서 먹도록 했어. 또 입는 옷까지(주민).

생필품조차 부족했던 1950~1960년대에 성당을 통해 미국에서 원조된 구호 물품이 보급되었다는 점이 천주교 교세 확장에 영향을 주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구호 물품 보급과 함께 주민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일을 시켰어. 뭐라 하나 요즘 같으면 취로 사업? 공공 근로? 물론 그것이 마을 일은 아니지만 성당 터 닦는데, 성당 정리 정돈 하는데, 성당 매립하는데 신자들이 나와서 일 하고 하면 그거에 따라 수고비로 밀가루를 주곤 했지…뭐 공짜로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일을 시키고, 일하는 보람도 거기에 있었지. 일 하면 보수가 주어진다는 그런 인식을 사람들에게 심어 준거지(신창성당 출신 신부).

한편, 주민의 문화생활 기회 제공도 성당의 역할에서 빼놓을 수 없다. 제주도에서도 변방인 신창마을에서 주민들이 문화생활을 누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이러한 여건에서 성당은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했고, 문화생

활이 전무하였던 지역에 문화와 여가생활 기회를 제공하였다. 2005~2006년에는 매주 목요일 노인들을 대상으로 '어르신 성경 공부'를 실시해오고 있어 노인들이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 성당에 가면 신부님들과 더불어 어울려 지낼 수 있겠구나 생각했지. 그 당시 자동차가 어디 있었어? 신부님들 차 갖고 있었지. 그 당시에 영화가 어디 있었어? 신부님들이 미군 부대에 가서 빌려다 보여주면서부터 많이 달라졌지…큰 군 트럭 같은 거 빌려다가 도 일주 시켜주는 거 그 당시에 얼마나…돈 없어서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신부님이 미군 부대에 가서 빌려다가 신자들을 위해서도 일주시켜주고. 그런 성당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의 생활 터전이 됐어. 그 전에 오락 시설이 전혀 없었잖아. 성당 중심으로 놀이터가 되고 거기서 서로 만나면서부터 서로 깨우침을 받았고(신창성당 출신 신부).

다른 한편, 성당은 주민들로 하여금 성당의 관련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민 편의를 제공해 왔다. 마을에 영안실이나 장례식장을 갖춘 병원이 없는 상황에서 장례를 치를 경우 신창성당이 관리하는 장례식장을 이용하게 한다. 더욱이 성당 장례식장을 신자, 비신자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민 생활에 밀착해 왔다.

> 장례식장은 누구든지 사용을 하죠. 마을 주민들 다 사용하죠. 이번에 새로 지을 거예요. 다음 달이면 공사 시작할 텐데. 그것도 지역 모든 분들 다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죠(신창성당 신부).

> 성당 같은데 소위 장례식장 같은 것을 만들어 놓으니깐 집 비좁고 하면은 다 하지. 신자가 아니더라도 거기를 잘 이용하니깐. 경조사도 다 이용해. 잔치 같은 때에도 저 성당 빌려서 할 수도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불교 믿는 사람이든 아무라도. 천주교 장례식장에서도 불경 틀어. 관계없어(주민, 비신자).

특히, 2006년 10월부터 시작한 독거노인 반찬 배달 사업이 주목할 만하다. 이 사업은 신자들의 봉사 활동이 필요한 사업으로, 초기에는 신자 중 50명 정도의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현재는 비신자 독거노인을 포함하여 약 60명에게 반찬을 배달하고 있다. 이를 맡아서 하는 단체는 성당의 여성 단체로 데레사회, 바울라회, 조수공소의 마리아회, 용수공소의 어머니들 모임 등 네 단체가 한 주씩 돌아가면서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각 마을별로 나누어진 구역에서 일요일마다 각 구역에 있는 독거노인들에게 배달하게 된다. 현재 이 사업은 봉사 일손이 부족해 어려움도 겪고 있다. 신자들이 주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보니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무엇보다도 재정적인 여력이 부족해 더 이상 사업을 확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신창성당이 해오고 있는 반찬 배달 사업은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고 독거노인이 증가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다.

5. 결론

지금까지 제주도 신창마을을 중심으로 하여 천주교회의 지역화와 지역 활동을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고 앞으로의 연구 과제를 제시하면서 이 글을 끝맺을까 한다.

신창마을을 중심으로 볼 때 천주교 신자수가 과거와 비교해볼 때 감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농어촌의 인구수 감소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신창마을은 인구 대비 천주교 신자 비율이 36% 정도를 차지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신창마을의 척박한 자연·지리적 환경과 초·중등학교의 통폐합 등으로 젊은 층들의 이농이 두드러진 데서 연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창마을에서 천주교의 영향력은 여전히 상당하며 대다수 지역 주민들에게는 그들의 삶과 생활의 일부로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창마을에서 천주교가 한 주목할 만한 활동으로는 지역 주민들의 의식 개선과 계몽, 주민 화합 활동과 함께 주민 교육에 대한 기여, 특히 유아 교육 기회를 확대시켰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주민 생활의 편의를 제공해왔는데, 구호 물품 등에 의한 구민 활동, 지역의 문화적 공간으로서의 역할, 장례식장 제공 등 주민 편의를 제공해주었고 독거노인을 위한 반찬 배달 사업 등 지역 복지에도 일정한 역할을 해왔다.

이 글은 신창성당 관할 지역, 특히 신창마을을 중심으로 천주교의 성장과 지역화를 살펴보는 것을 중심을 두었기 때문에, 신창마을 이외의 신창성당 관할 지역(두모, 낙천, 용수, 용당, 조수, 저지, 판포, 한원, 금등) 사례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다루지 못하였다. 앞으로 천주교회의 지역화와 지역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신창마을을 넘어서 인근 한림지역과 제주도 전체 혹은 한국 사회와 비교론적 관점에서 지방사와 천주교회사를 결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천주교의 지역화와 종교 공동체로서 천주교 마을의 변동에 대한 상호 연계적 관점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 이것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주제어 : 천주교, 지역화, 지역 활동, 신창마을, 제주도

투고일 : 2007. 9. 10 심사 시작일 : 2007. 10. 1 심사 완료일 : 2007. 10. 12

ABSTRACT

Regionalization and Community Participation of Roman Catholicism in Shinchang of Jeju Island

Yeum, Mi Gyeung
Cheju National University

This article analyzes the background for which Roman Catholicism was established in Shinchang community of Jeju Island, and the process which Roman Catholicism has become naturalized there. The reference research method and the depths interview method centering on main informers were mainly used for analysis. Especially, I get interested in the regionalization and community activities of Roman Catholicism in Shinchang community.

Jeju Island is a society where a shamanist custom rooted strongly and has become an everyday raw base. The current number of the Roman Catholic persuasion comes to 36 precent of the residents and it has exceeded the national average(10 percent). When seeing on such the side, Roman Catholicism of specific gravity is also high in Shinchang area.

The analysis result of this study seems to be the next: Roman Catholicism is considered as an important role agent in Shinchang area after descending to the community. Roman Catholicism made educational opportunity of early childhood expand with local residents' consciousness-

raising, enlightenment, harmony activities between residents, and education for residents. Roman Catholicism has afford every facility by relief material, a cultural space, and a funeral hall. Roman Catholicism has also played the fixed role in area welfare by doing activities like the dish delivery business for aged people of a single life. The influence of Roman Catholicism is dominant in the present at Shinchang community.

Key words : Roman Catholicism, Regionalization, Community Activities, Shinchang, Jeju Island